

### ‘원화강세·달러약세’ 득일까 실일까

# 기업들, 부채 줄어 好好... 장기화땀 물가하락 악순환

## 달러의 힘, 新통화전쟁

### 원화강세 효과와 금리인상 우려

美 금리 인상땀 기업들부담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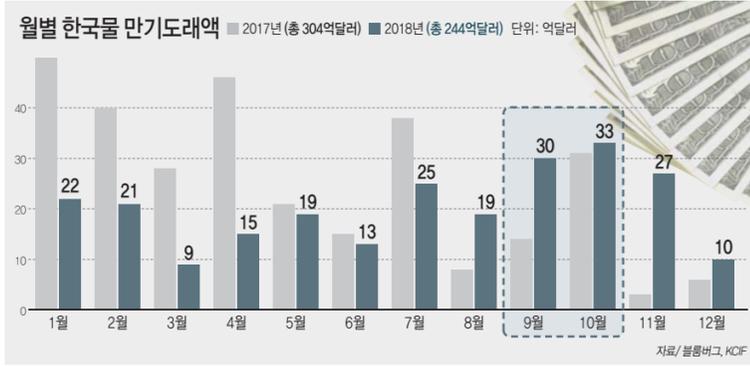
韓 금리 인상, 수출에 부정적 영향  
대출금리 상승에 자영업자 등 타격

#국내 제조업체 자금담당 부사장인 A씨. 새해를 맞아 그의 가장 큰 고민은 환율과 법인세, 금리 3종 세트다. 당장 원화값 상승이 큰 걱정이다. A씨는 “환율이 1원 움직일 때마다 순이익이 많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나마 달러로 빌린 외채 부담을 덜어 위안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규투자를 해야 하는데 해외 빚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처지다.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져서다.

‘약한 달러’는 한국경제에 위협이자 효자다. 기업들은 수출로 번 돈을 환율로 까먹지만, 원화값 강세로 해외 빚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원화값 강세가 지속된다면 기업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레버리지(차입) 투자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예고되면서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환경은 더 악화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 ◆달러 부채 많은 기업 ‘好好’

신흥국 경제는 달러 약세가 큰 도움이



다. 선진국에서 달러 부채를 많이 얻어 쓴 이들 국가의 경제와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상승 위험 부담이 커 환율 변동은 해외 빚(외화) 부담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다.

외환 시장 한 관계자는 최근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신흥시장 국가들의 달러 부채 상환 부담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정책으로 신흥국에서 받을 뻔했던 돈이 다시 신흥시장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원화값 강세로 당장 빚 걱정을 덜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18년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채권 한국물은 224억 달러 규모다. 이는 지난해 304억 달러보다 20% 가량 적다. 특히 6~12월 사이에 144억 달러의 만기가 몰려있다. 월별로 보면 9월과 10월에 각각 30억 달러, 33억 달러 가량의 빚을 갚아야 한다. 11월에도 27억

달러가 몰렸다.

기관별 비중은 국책은행의 비중이 49%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기업(25%), 일반은행(13%), 일반기업(11%) 순이다.

통화별로는 주요 3개국(G3) 통화가 168억 달러(비중 70%)로 가장 많다. 이는 지난해 263억 달러(85%)보다 큰 폭 줄어든 것이다. 이 중 달러화 만기도래액이 52%로 가장 많다. 2015년 발행이 늘었던 위안화 채권(3년물)의 만기 비중도 10% 가량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 연구원은 “전체 부채에서 달러화 부채의 비중이 높고, 달러화 자산보다는 달러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원화 강세 시기에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이자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기엔 ‘부채절벽’ 걱정해야, 금리 복병까지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퍼진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가 버틸만 했다. 앞으로가 걱정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나 기업 모두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릴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화값 강세로 향후 환율 빚 부담 감소가 새로운 부채 리스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외화 부채 비율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난기류를 만날 수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이는 달러 수요 증가로 이어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정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

20)의 부채 비율 평균은 210%에서 235%까지 25%포인트 상승했다. 절대 비율은 아직 평균에 미치지 않았지만 상승폭을 보자면 한국이 평균의 2배에 달한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상승→자금조달 위축(부채절벽)→투자감소→경쟁력 약화→재무리스크(부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터라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신흥국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고한 터라 수요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부담이 된다. 원화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 채무 상환부담을 증가시키고, 원화 절상을 가속할 수 있다”며 “자칫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대출금리는 최대 3%p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은이 통상 0.25%p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므로 실제 대출금리는 0.5%p~0.75%p 오를 수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 금융부채가 25조원 급증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불공정거래 사건 35% 감소... ‘주식문자’ 신종피싱 주의

### 금감원, 미공개정보이용사건 늘어 투자자 경보 발동... 관련종목 조사

지난해 감독당국이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행정조치한 불공정거래가 108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보는 사례는 늘었으며, 신종 주식 문자피싱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 대비 34.6%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4.7%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
검찰고발·통보	89	104	77	△27(△26.0%)
행정조치 등	36	45	31	△14(△31.1%)
무조치	47	23	31	+8(+34.8%)
합계	192	172	139	△33(△19.2%)

/자료=금융감독원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조사를 종결한 사건 중 증권선물위원회 의의결 등을 거쳐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1건을 과징금 등 행정조치

했다.

검찰에 이첩한 77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35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위반 등

(10건)의 순이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의 사건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 2017년 45.5%로 높아지는 추세다.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최대 150만건의 허위 주식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세지가 무차별로 유포된 주식 문자 피싱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경보를 발동하고 관련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에 긴급조치(Fast Track)로 이첩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수출 최대 12% 상승 전망 수은, 1분기 실적 등 평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12%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4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2018년 1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했다.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12% 내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수출 대상국 경기회복과 유가상승,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증가세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라며 “다만 미국 통상압력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환율 강세 등이 일부 품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 GS25, 평창지역부터 ‘외환 결제 서비스’

### 달러·엔화·유로·위안화 사용 가능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평창 지역 GS25를 시작으로 전국점포에서 외환 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외환 결제 서비스는 원화로 환전을 하지 않은 달러, 엔화, 유로, 위안화까지 네 종류의 외환 지폐를 GS25 점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혁신적인 서비스다.

GS25의 이번 외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주요외환 지폐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

집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화가 급하게 필요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GS25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남은 거스름으로 소액 환전 효과(5만원 이하)까지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GS25는 혹시 모를 외환 위조 지폐 사고가 있을 것을 대비해 본부의 비용으로 보증을 가입하고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앞서 GS25는 지난달부터 포스(계산대)에서 당일 환율과 수수료가 적용된 원화로 인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2점

포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GS25는 평창 지역 점포에 환전하지 않은 외환 지폐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홍보물을 부착해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GS25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환 결제 서비스는 이번 동계스포츠 행사가 끝난 후에도 명동이나 제주도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GS25에서 지속 운영됨에 따라 외국인 고객 유입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의 수익 확대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GS25는 기대하고 있다.

GS25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시작하는



GS25가 환전없이 외환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GS리테일

외환 결제 서비스는 지금까지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

운영함으로써 GS25 가맹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